‘강식당’, 강호동X이수근 빛난 케미 ‘윤식당’과 달랐다

‘신서유기 외전 통합 감독판’ 시청자들 큰 관심

힐링 예능+리얼 버라이어티로 새로운 포맷 도전

tvN 예능 프로그램 ‘신서유기 외전’이 종영했다.

지난 9일 방송된 tvN ‘신서유기 외전 통합 감독판’에서는 본편에서 방송되지 않았던 ‘강식당’ 촬영분을 모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편 최고 시청률 9%를 돌파했던 ‘강식당’이었기에, 시청자들은 마지막화 ‘감독판’까지 큰 관심을 가졌다.

감독판에서 공개된 비하인드 모습에서는 ‘강식당’을 찾은 손님들의 성향을 분석하는가 하면 멤버들 역시 식당 업무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드러내는 직장인의 면모를 보여줘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또한 드디어 멤버들이 바라던 ‘노래방’에 입성, 가장 낮은 점수가 나오는 멤버가 다음 회식비를 내기로 함으로써 티격태격하는 유쾌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때 얼굴에 핏대를 세우면서 영혼까지 끌어 모아 열창을 선보인 강호동부터 화려한 탬버린 실력을 뽐내고 멤버들의 노래에 중간중간 피처링을 넣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끈 이수근까지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던 모습들이 공개되며 더욱 웃음을 자아냈다.

이렇듯 ‘신사유기 외전-강식당’이 본편은 물론 ‘감독판’까지 시청률 7.1%(TNMS 제공)라는 뜨거운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강식당’이 ‘힐링 예능’부터 신서유기 멤버들의 ‘리얼 버라이어티’를 혼합해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포맷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윤식당’이 일상에 지친 시청자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었다면, ‘강식당’은 ‘강호동-이수근’의 케미를 필두로 멤버들의 유쾌하고 현실적인 노동 일기를 보여줬다.

신서유기 외전이었지만, 이제는 ‘윤식당 시즌2’처럼 ‘강식당 시즌2’를 바라는 시청자들이 많다. 멤버들이 언급했던 ‘강세차’, ‘이수근 식당’ 등이 기대되는 이유다. ‘I’ll be back’이라는 자막을 마지막으로 잠시 우리 곁을 떠난 신서유기 멤버들, 무엇이든 좋으니 곧 다시 돌아오길 기대해본다.

전세계 주목한 스티븐 스필버그 신작 ‘더 포스트’ 내달 개봉한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주목한 실화 ‘더 포스트’가 전미비평가위원회 작품상을 비롯, 3관왕 수상에 이어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무려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며 아카데미 시상식의 유력한 후보로도 지목되고 있다.

‘더 포스트’는 1971년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베트남전 발발에 개입했다는 국방부 기밀문서 ‘펜타곤 페이퍼’를 폭로한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의 최초 여성 발행인 ‘캐서린 그래햄’과 편집장 ‘벤 브래들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더 포스트’가 전미비평가위원회 선정 3관왕에 이어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를 비롯한 세계 유수 영화상에 노미네이트 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아,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2018년 첫 신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더 포스트’는 1971년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펜타곤 페이퍼’ 폭로 실화를 그만의 시선과 묵직하고도 긴장감 있는 연출로 그려내 해외 언론과 평단으로부터 극찬을 이끌어낸 작품이다. 북미 개봉을 약 한 달여 앞둔 지난 11월 말 ‘더 포스트’는 수상자를 여러 영화에 분산시켜오던 기존의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전미비평가위원회 작품상부터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까지 주요 부문 수상을 독차지하며 영화에 신뢰를 더욱 높였다. 특히 ‘라이언 일병 구하기’ ‘쥬라기 공원’ 등 장르와 소재를 뛰어넘는 작품들을 통해 시대가 지나도 변치 않는 걸작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준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와 말이 필요 없는 할리우드 대표 명배우 메릴 스트립과 톰 행크스, 세 거장이 함께 탄생시킨 작품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전미비평가위원회 선정 올해 최고의 영화를 비롯, AFI 어워즈 올해의 영화상 수상, 제75회 골든 글로브 총 6개 부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음악상) 노미네이트, 제23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총 8개 부문(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앙상블상, 음악상, 편집상) 노미네이트, 미국 프로듀서 조합상 프로듀서상 노미네이트 등 개봉 전부터 무려 64개 부문(1/9 기준) 노미네이트, 7개 부문(1/9 기준) 수상이라는 남다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듯 본격적인 영화상 수상 레이스를 시작한 ‘더 포스트’는 시사적 주제를 탄탄한 서스펜스와 캐릭터를 통해 그려내며 올해 2월 국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오로지 스필버그 감독만이 보여줄 수 있는 노련한 내공은 물론, 노장의 마르지 않는 연출 열정을 드러낸 이번 작품은 틈 없는 스토리와 사건을 추적하는 스릴 있는 전개, 배우들의 폭발적이고 섬세한 연기가 더해져 올해 전 세계의 이목을 단숨에 집중시킬 예정이다. 2월 개봉 예정.

‘슈가맨2’, 이미 시작된 추리…추억 소환 준비 완료

추리는 이미 시작됐다.

오는 14일 첫 방송되는 JTBC 예능프로그램 ‘투유프로젝트-슈가맨 시즌2(이하 슈가맨2)’를 향한 시청자의 관심이 심상치 않다. 지난 7일 방송된 ‘슈가맨 리턴즈’에서 ‘슈가맨2’ 첫 회 예고편이 공개된 이후, 일부 네티즌은 이미 슈가맨의 정체에 대한 추리에 돌입했다.

‘슈가맨2’ 시청자들은 슈가맨을 소개하는 MC 유희열, 유재석의 멘트에서 힌트를 찾았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이분을 싫어하는 남자는 없었다”, “그런데 유재석씨는 싫어했다”, “댄스 열풍의 주역이었다” 등의 멘트를 힌트로 삼아 하수빈, 장나라, 언타이틀 등이 슈가맨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슈가맨2’에서 꼭 보고 싶은 추억의 가수 리스트, 방송보다 먼저 시작된 온라인상의 슈가맨 추리까지. 이 모든 것은 ‘슈가맨2’를 간절히 기다려 온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입증한다.

‘슈가맨2’를 이끄는 윤현준 CP는 YTN Star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첫 회 슈가맨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들에 대해 묻자 “저는 잘 모르겠다. 방송을 보면 시청자들의 추리가 맞는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라며 웃음으로 넘겼다.

윤 CP는 “사실 ‘슈가맨’은 유명한 가수들뿐만 아니라 ‘아 이런 사람이 있었지’, ‘맞아 이런 노래가 있었어’와 같은 감동을 주는 게 기획 의도다. 유명했던 분들도 섭외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본 취지에 맞게 열심히 섭외하고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즌의 첫 번째 쇼맨으로는 대세 아이돌 그룹 구구단과 뉴이스트가 출격한다. 대세 듀오 멜로망스도 최근 쇼맨으로 녹화에 참여했다. 추억의 슈가맨을 소환해 슈가송을 대중에 선물하는 중요한 역할인 만큼 제작진은 쇼맨 섭외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윤 CP는 “슈가송을 요즘 트렌드나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게 리메이크해 조금 더 많은 이들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구구단, 뉴이스트도 그런 취지에서 섭외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슈가송이다. 누가 가장 이 노래와 잘 맞을까를 생각하며 섭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즌에서는 ‘투유’ MC 유재석, 유희열과 함께 박나래, ‘레드벨벳’ 조이가 새롭게 호흡을 맞춘다. 윤 CP는 “네 MC의 호흡이 기대했던 그대로다. 아직 초반이라 어색함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기대 이상일 것 같다”며 “박나래는 워낙 잘 하는 분이고, 조이 역시 톡톡 튀는 매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조이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어린 친구라 슈가맨이나 슈가송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 오는데 그 자세가 너무 예쁘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슈가맨2’는 14일 밤 10시 30분 첫 방송된다.

‘비디오스타’ 강균성X박나래 절친 콜라보 옳았다

강균성이 박나래와 특급 우정을 과시하며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

노을 강균성은 1월9일 방송된 MBC every1 예능 ‘비디오스타’에 MC 박나래의 절친으로 등장해 남다른 예능감으로 화요일 밤을 초토화 시켰다. 몸을 사리지 않는 개인기는 물론 재치 있는 입담으로 절친 박나래와 완벽한 케미를 선보인 것.

이날 방송에서 강균성은 “박나래와 개그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하면서 친해졌다. 우리는 반찬통까지 공유하는 사이”라며 박나래와 친분을 과시했다. 이어 강균성은 박나래와 녹화 직전 SNS 친구를 맺은 사실이 제보되자 “들켰잖아 이걸 가져오면 어떡하냐”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이는 한편, “넌 최고야! 언제나 최고!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회복하고 있어”라며 박나래에 대한 애정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이어 강균성은 “비디오스타만을 위해 개인기를 최초 공개 한다”며 자이언티의 ‘눈’ 성대모사를 시작으로 젝스키스의 ‘커플’을 김장훈의 목소리로 완벽하게 재현하며 그동안 감춰왔던 개인기를 대 방출했다. 또한 평소 운동을 통해 탄탄한 몸을 가꾼 것으로 알려진 강균성은 하체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점프 스쿼트’ 운동까지 직접 선보이며 남다른 예능감을 뽐냈다.

특히 박나래와 절친이 정말 맞냐는 의혹에 만들어진 ‘친해지길 바라’ 코너에서 “절친 특집에 오빠를 불러줘서 너무 고마워. 실제로도 정말 친해지자”라며 주변을 폭소케 만들었다. 이처럼, 강균성은 시종일관 재치 있는 입담을 선보이며 또 한번 예능에서의 존재감을 뽐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강균성 개인기 대박! 그의 개인기의 끝은 어디인가”, “평소에도 운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진짜 몸이 좋다!”, “재미있는 사람과 재미있는 사람이 친구라니! 완벽한 조화였다”, “어제 방송 완전 꿀잼! 강균성이 나오는 예능은 항상 챙겨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오늘의 운세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음력 11월 25일)

▶쥐띠 진실은 진실로 통하는 법. 묵묵히 주어진 일에 열중하고, 타인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라. 자식에게 더욱 신경 쓰라. 제작 건축업을 하는 사람은 흥하는 날이다. 단, 여자관계를 경계할 것. 4, 5, 6월생 노란색 단장.

▶소띠 바깥 일보다 내실을 기하라. 가족 사이 서로 감싸주는 사랑이 필요하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 가정이 원만해야 사업도 안정된다. 5, 6, 10월생 투기는 삼가고 현 상태를 유지하라. 신경과민은 금물.

▶호랑이띠 성급한 행동은 오히려 해를 가져온다. 때를 기다리며 자기 수양에 힘쓰라. 사업이나 가정 문제도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로 재출발할 때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며 행동하라.

▶토끼띠 겸손이 지나치면 오히려 무시당할 수 있다. 매사 자신 있게 행할 것. 세상에 자기만 외롭고 답답한 여자로 착각하지 말라. 우물을 파려면 한 우물을 파라. 믿었던 사람이 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격. 7, 8, 9월생 흰색으로 자신감 찾을 것.

▶용띠 축제 분위기에 휩쓸리다 다툼이 있을 듯. 과음을 삼가고 언행을 조심하라. 사업이 위태로운데 허황한 마음으로 한눈팔지 말라. 내조의 힘이 있어야 번창할 수 있다. 1, 4, 9월생 내실을 기하라. 밤길 운전 조심.

▶뱀띠 각오와 결단이 필요할 때. 실력자와 협력해 일을 추진하면 의외로 좋은 결과 있을 듯. 6월생은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으면 끝까지 간직하라. 살결이 검은 사람은 친가의 덕을 보면서도 신경을 쓰는구나.

▶말띠 기쁨과 즐거움이 교차할 수. 여러 모임으로 지출도 많으나 수입도 있겠다. 기혼여성은 직업을 갖고 싶으면 부업으로 작게 시작하라. 짭짤한 재미를 볼 수 있겠다. 욕심은 금물이다. 한 계단씩 올라가라.

▶양띠 꾸준함이 성공을 가져오는 것처럼 새로운 것보다는 현재를 지켜나감이 길하다. 자신 없이 하는 일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하는 격이니 용기가 필요하다. 3, 7, 12월생은 남녀 간 한발 양보해 성격을 맞추라.

▶원숭이띠 필요 이상 감정을 드러내면 대인 관계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애정에 실패한 사람, 여자는 연하가 따르고 남자는 연상이 따른다. 좋은 인연이 될 듯하다. 금전 조달은 될 듯하면서 침체 상태가 될 듯.

▶닭띠 혼자 욕심부리기보다 남을 도우면 큰 이득이 생긴다. 차근차근 탑을 쌓듯 베풀라. 한꺼번에 복이 온다. 4, 8, 10월생 신병이 악화하거나 우울증에 빠질까 염려된다. 애정은 욕심을 버리라.

▶개띠 사소한 일로 오해가 있으나 시간이 해결해준다. 성급히 굴지 말라.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애정은 부정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삼가라. 주위에 보이지 않는 눈이 수없이 많음을 인식하고 언행에 조심하라. 구설이 따른다.

▶돼지띠 저질러 놓고 감당하지 못 할 것은 하지말라. 가끔은 엉뚱한 행동으로 가족들을 놀라게 하는 성격을 고치라. 생업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지키고 안정도 해야 한다. 당신 아내가 울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